

## 근대 여자한복 유물의 문양연구

안 현 주\* · 조 우 현<sup>+</sup>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박사과정\* · 성균관대학교 의상학과 교수<sup>+</sup>

### A Study of Patterns of Women's Jackets (*Jeogori*) in Modern Korea

Hyun-Joo An\* · Woo-Hyun Cho<sup>+</sup>

Doctoral Course,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Fashion Design, Sungkyunkwan University<sup>+</sup>

(투고일: 2010. 8. 27, 심사(수정)일: 2010. 10. 5, 게재확정일: 2010. 11. 25)

#### ABSTRACT

This thesis has three main purposes: first, will show kinds, patterns, types, expression techniques of modern Korean women's trimmings by every ten years. Second, it is to trace the effect of each decade on women's *Hanbok* trimming designs. Third, it will point out factors that caused the change of modern Korean women's *Hanbok* trimming design patterns. Henceforth, there comes the result of the research and analysis. Trimming design patterns of modern women's *Hanbok* can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temporally: The first period of from 1910s to the first half of 1950s saw that design patterns did not changed much from traditional ones. It is because there were many catastrophes such as the invasion of Japanese Empire and Korean War. The compound design had expressed people's wish to earn many sons and babies at the end of Joseon Dynasty. But it turned to wishing luck for individuals affected by individualism and liberalism imported from the west. Realistic designs are the most frequently used and the least lines made up patterns. The second period of from the latter half of 1950s to 1970s saw that women wore their *Jeogories* and *Chimas* as suits. Screen printing technique enabled for various design patterns to come out. And the development of textile industry introduced various expression techniques such as making lace, meshing, flocking, burn-out etc cetera. The third period of 1980s saw that *Hanbok* became a kind of luxurious clothe as people's living standard rose. *Hanbok* again came into the spotlight, *Hanbok* designers came forward and their individualities are respected. The characteristic expression technique of grey-dying and geometric design patterns are more frequently used for the simple and modern beauty.

Key words: Chima(skirt, 치마), factor of change(변화요인), Hanbok(한복), Jeogori(jacket, 저고리), modern times(근대), pattern(문양)

본 논문은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본 연구는 서울시 산학연 협력사업(10956)에 의하여 일부 지원되었음.

Corresponding author: Woo-Hyun Cho, e-mail: joy54@hanmail.net

## I. 서론

복식은 입는 사람들의 민족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 관습에 따라 변화하며, 그로 인하여 오늘날과 같은 다양한 민족 복식을 볼 수 있다. 한복 역시 우리 고유의 정신문화와 반도의 지리적 특성, 외부 문화의 영향 등으로 고대부터 현재까지 변화, 발전하였다. 특히 개화기 초(1876) 복식 착용이 자유로워지고 서양복의 유입으로 의복이 개방되기 시작하여 이러한 변화는 한복의 소재와 형태, 색채 등에 상당한 변동을 가져왔다. 그 중 복식의 꽃이라 할 수 있는 문양은 사람들의 美에 대한 욕구와 입는 이의 관심사를 표현하고 소망을 표현하는 도구가 되기도 하며 의복의 용도도 짐작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타국과의 교류와 당시의 정치, 사회, 종교관 등도 추측할 수 있으므로 복식의 문양은 역사서라 할 수 있을 만큼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현재 우리는 복식유물, 벽화, 그리고 문헌기록과 선행연구를 통하여 고대부터 조선까지의 복식문양에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의 복식은 일제강점기와 화장(火葬)문화, 유물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 부족 등으로 인하여 현재 그 수가 적어 근대 한복문양의 변천요인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세계화로 자국에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본 연구는 국제화의 물꼬를 튼 과도기인 근대<sup>1)</sup>를 집중적으로 고찰하고자 하며, 당시의 정치, 경제, 사회가 복식문양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살피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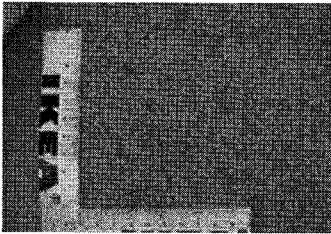
본 연구는 정확한 문양 분석 자료를 만들고자 1910년에서 80년대까지 근대 여자한복의 실물자료를 이용하였고 근대 한복의 직물문양을 자료화하는 것만으로도 연구의 의의는 크다고 본다. 또한 저자의 연구를 통하여 근대 복식문양이 복식사, 미술사, 디자인 등의 문양 관련 연구에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나아가 전통문양의 현대화 작업을 통한 제품디자인, 문화상품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베이스로도 적극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문양조사에 사용된 자료는 대전 성모여자고등학교 소장의 근대 복식유물로 문양조사에 사용된 자료는 총 403점으로 여자저고리 274점,

치마 129점이다. 전국 규모로 수집된 본 자료는 연대와 기증 경로의 기록이 어느 정도 남아있어 유물의 정보 파악과 시기 분류가 용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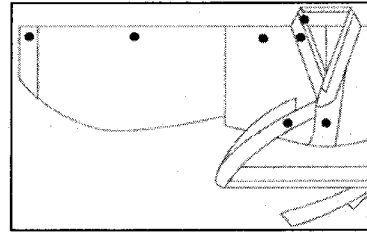
조사기간은 2009년 1월 12일에서 2월 26일까지 총 46일간이며, 성균관대학교 복식사연구실에서 실시하였다. 문양기록을 위하여 Samsung VLUU NV7, Canon 500D를 이용하였으며, 모티브 크기까지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 1>과 같이 직각으로 만든 IKEA 종지 자를 유물 위에 올려놓고 기록하였다. 저고리의 문양조사는 <그림 2>와 같이 등정, 깃, 길, 소매, 끝동, 고름으로 나누어 각각 문양을 기록하였고, 삼회장저고리는 여기에 결마기를 포함하였다. 항목을 나누어 조사한 까닭은 회장, 반회장저고리의 경우 길, 소매의 직물과 깃, 끝동, 고름, 결마기에 사용된 직물이 다른 경우가 있으며, 색동저고리는 색동마다 문양이 다른 경우가 있어 1점의 저고리에 2개 이상의 직물이 사용된 경우를 고려하여 다양한 직물문양을 조사하고, 보다 정확한 근대 문양데이터를 만들기 위함이다. 치마는 전체에 고루 문양이 분포되어 있어 조사부분을 특별히 정하지 않았다. 조사를 위하여 마스크, 가운, 흰 장갑을 항상 착용하여 유물과 조사자 사이의 오염과 손상을 최소화 하였다.

근대 여자한복 문양의 변천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자료와 선행연구를 통하여 조선 후기 복식문양의 특징을 알아보고, 시대적 배경과 관련하여 문양변화를 고찰하였다. 유물의 연도구분은 근대복식의 관련 치수, 소재, 색채의 선행연구의 정보를 참고하였고, 문양 종류의 조사에 기준이 되는 문양계보를 만들기 위하여 김인숙<sup>2)</sup>, 박상미<sup>3)</sup>, 박영진<sup>4)</sup>, 백영심<sup>5)</sup>, 심연옥<sup>6)</sup>, 임영주<sup>7)</sup>, 최경순<sup>8)</sup>, 하덕순<sup>9)</sup>, 하호선<sup>10)</sup>, 국립문화재연구소<sup>11)</sup> 등의 연구에 사용된 문양명(名)과 종류를 참고하여 재분류하였다. 패턴방식은 김선경<sup>12)</sup>의 연구를, 표현형태는 장수경<sup>13)</sup>의 연구를 참고하였다.

이와 같이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복식문양의 용어를 정리하여 패턴방식, 표현형태, 표현기법 등을 제시하고 근대복식의 형태, 소재, 색채 관련 선행연구를 통하여 유물의 연도구분과 시기별 문양종류, 패턴크기, 패턴방식, 표현형태, 표현기법 등을 조사하여 각각의 특징을 알아보았다. 또한 여자한복 유물의 문



〈그림 1〉 IKEA 종이줄자를 이용한 조사방법



〈그림 2〉 저고리 문양조사 항목  
(●: 길, 소매, 고름, 깃, 끝동, 쇄, 동정)

양 특징과 변천요인을 분석하였다.

## II. 근대 여자한복 문양의 분석기준

### 1. 복식문양의 분류

복식문양은 모티브의 형성에 따라 3가지로 분류하여 자연문(自然紋), 인공문(人工紋) 그리고 자연문과 인공문이 결합한 형태로 구분하였다.

#### 1) 자연문

자연문은 사람의 손을 가(加)하지 않고 스스로 생겨난 물질(物質)을 나타낸 문양으로 모티브의 종류에 따라 식물문(植物紋), 동물문(動物紋), 인물문(人物紋), 산수문(山水紋)으로 나눈다.

##### (1) 식물문

식물문은 광합성을 하는 생물의 문양으로 꽃을 모티브로 한 화문(花紋)과 목(木)질의 줄기를 갖은 나무문(木紋), 열매를 모티브로 한 과실문(果實紋)이 여기에 속한다. 화문은 다시 2종류로 분류 가능한데, 자연 그대로를 표현한 자연형화문과 마름모꼴이나 원(圓)의 형태로 나타낸 변형화문이 있다. 자연형화문은 국화문, 규화문, 길경화문, 난초문, 당초문, 도화문, 동백화문, 매화문, 목단문, 보상화문, 불두화문, 불로초문, 사군자문, 사양화문, 석류화문, 수국화문, 수선화문, 연화문, 월계화문, 이화문, 장미문, 초화문, 튜립문, 해당화문이 있고, 변형화문으로는 능화문, 단화문, 대화문, 세화문, 절화문이 있다. 나무문은 십장생에 표현된 소나무를 제외하고는 조선과 근대복식에

사용된 흔적을 발견하기 힘들어 송문, 죽문, 기타목문으로 분류하였다. 과실문은 불수문, 삼다문, 석류문, 천도문, 포도문, 표주박문으로 나누었으며, 이상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 (2) 동물문

동물문은 식물과 대응하는 생물의 문양으로 길짐승을 표현한 수문(獸紋)과 날짐승인 조문(鳥紋), 머리, 가슴, 배로 나누어진 곤충문(昆蟲紋), 아가미가 있어 물에 사는 어류인 어문(魚紋), 마지막으로 전설의 신령한 동물인 사령문(四靈紋)으로 분류하였다.

주수문(走獸紋)이라고도 불리는 수문은 흉배에 더욱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귀문, 룡문, 서문, 토문, 호문으로 정리하였다. 조문은 공작문, 원앙문, 작문, 적문, 편복문, 학문으로 제시하였다. 곤충문은 봉문, 선문, 접문으로 나누었으며, 어문은 동물문에 속하여 분류하였으나 조선과 근대복식에 사용된 문양에서는 찾기 어렵다. 사령문은 4가지의 신령한 동물로 기린문, 봉황문, 용문 그리고 귀문이 있는데, 거북을 의미하는 귀문은 수문에 속하므로 사령문에는 나머지 3가지의 상상동물로 분류하였으며, 앞서 언급한 동물문의 내용은 <표 2>로 정리하였다.

#### (3) 인물문

인물문은 동자문(童子紋)과 기타인물문(其他人物紋)으로 나누었다(표 3).

#### (4) 산수문

산수문은 풍경을 일컫는 문양으로 하늘에 있는 풍

<표 1> 식물문 용어정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의		
자연문	식물문	광합성을 하는 생물의 문양			
		꽃을 모티브로 한 문양			
		자연형	국화문(菊花紋)	국화꽃	
			규화문(葵花紋)	해바라기꽃	
			길경화문(桔梗花紋)	도라지꽃	
			난초문(蘭草紋)	난초	
			당초문(唐草紋)	덩굴문양으로 만초문이라고도 함	
			도화문(桃花紋)	복숭아꽃	
			동백화문(冬柏花紋)	동백꽃	
			매화문(梅花紋)	매화꽃	
			목단문(牡丹紋)	모란꽃	
			보상화문(寶相華紋)	상고시대에 유행한 식물 모양의 장식문양	
			불두화문(佛頭花紋)	부처님 머리카락같이 곱슬 형태의 꽃	
			불로초문(不老草紋)	불로초	
			사군자문(四君子紋)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	
			사양화문(四樣花紋)	계절을 대표하는 4가지 꽃	
			석류화문(石榴花紋)	석류꽃	
			수국화문(水菊花紋)	수국화	
			수선화문(水仙花紋)	수선화	
			연화문(蓮花紋)	연꽃	
			월계화문(月季花紋)	월계꽃	
			이화문(梨花紋)	배꽃	
			장미문(薔薇紋)	장미	
			초화문(草花紋)	무명(無名) 식물의 잎, 줄기, 뿌리 등	
			튤립문(tulip紋)	튤립	
			해당화문(海棠花紋)	해당화	
			변형	능화문(菱花紋)	마름모 형태의 꽃 문양
				단화문(團花紋)	원 형태의 꽃 문양
				대화문(大花紋)	크기가 큰 꽃 문양
		세화문(細花紋)		크기가 작은 꽃 문양	
		절화문(切花紋)		가지가 꺾인 형태의 꽃 문양	
		나무문	목질(木質)의 줄기를 갖춘 식물의 문양		
			송문(松紋)	소나무	
			죽문(竹紋)	대나무	
			기타나무문	종류를 알 수 없는 나무	
		과실문	열매를 모티브로 한 문양		
			석류문(石榴紋)	석류	
			불수문(佛手紋)	불수감	
			삼다문(三多紋)	다수(壽), 다복(福), 다남(男)을 의미하는 3가지 과일 복숭아, 석류, 불수감	
			영지문(靈芝紋)	영지	
			천도문(天桃紋)	복숭아	
			포도문(葡萄紋)	포도	
			표주박문(葫蘆紋)	호리병박	

경을 표현한 천문(天紋)과 땅에 있는 산수를 표현한 지문(地紋)으로 나누었다. 천문은 뇌문, 운문으로, 지문은 빙문, 산문, 수파문, 암석문으로 분류하였고,

<표 4>와 같다.

<표 2> 동물문 용어정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의	
자연문	동물문	식물과 대응하는 생물의 문양		
		수문	주수문이라 불리기도 하며, 길짐승을 표현한 문양	
			귀문(龜紋)	거북
			록문(鹿紋)	사슴
			서문(鼠紋)	다람쥐
			토문(兔紋)	토끼
			호문(虎紋)	호랑이
		조문	날짐승을 표현한 문양	
			공작문(孔雀紋)	공작
			원앙문(鴛鴦紋)	원앙
			작문(鵲紋)	까치
			적문(翟紋)	쟁
			편복문(蝙蝠紋)	박쥐
			학문(鶴紋)	학
		곤충문	머리, 가슴, 배로 나누어진 곤충의 문양	
			봉문(蜂紋)	벌
			선문(蟬紋)	매미
			접문(蝶紋)	나비
		어문	아가미가 있는 물에서 사는 척추동물인 물고기의 문양	
		사령문	전설에 네 가지의 신령한 동물 문양	
			용문(龍紋)	용
			봉황문(鳳凰紋)	봉황
기린문(麒麟紋)	기린			

<표 3> 인물문 용어정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의
자연문	인물문	사람모습의 문양	
		동자문(童子紋)	동자
		기타인물문(其他)	그 외의 사람 문양

<표 4> 산수문 용어정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의	
자연문	산수문	경치를 명명하는 문양		
		천문	뇌문(雷紋)	번개
			운문(雲紋)	구름
		지문	빙문(氷紋)	얼음
			산문(山紋)	산
			수파문(水波紋)	파도
			암석문(巖石紋)	돌

2) 인공문

자연문과 대조되는 인공문은 사람의 힘이 가하여 만들어진 문양으로 기하문이 여기에 속한다.

기하문은 다양한 선들이 교차하여 이뤄진 문양으로 소리를 시각화하기 위하여 선(線)을 기호화시킨

문자문(文字紋)이 여기에 속하고, 점, 직선, 곡선, 면들이 자유롭게 결합한 추상문(抽象紋) 또한 기하문에 속한다. 문자문은 다양한 의미의 길상문자가 있으나 근대복식에 사용된 길상어(語)인 福, 富, 祥, 壽, 喜자문으로 정리하였다. 추상문은 직선으로 구성된 것과 곡선으로 구성된 것이 있는데, 직선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문양에는 귀갑문, 능문, 만자문, 방격문, 아자문, 회자문, 선문이 있다. 곡선으로 구성된 추상문은 연주문, 점문, 태극문이 있으며, 원형(原形)을 알 수 없는 마블링 형태의 문양은 추상화문(抽象形紋)이라고 명명하였다. 기타기하문(其他幾何紋)에는 채조문이 있다. <표 5>는 이상의 내용을 표로 만든 것이다.

3) 자연문+인공문

자연문과 인공문이 결합한 문양에는 보문(寶紋)과 복합문(複合紋)이 있으며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문

귀중한 것을 일컫는 문양인 보문은 보배문이라고도 불리며, 팔길상문(八吉祥紋)과 칠보문(七寶紋), 잡보문(雜寶紋)으로 분류하였다. 팔길상문은 불교의 8가지 진귀한 기물들로 자연문인 금어문, 연화문과 인공문인 반장문, 백개문, 법라문, 법륜문, 보병문, 보산문이 있다. 칠보문은 생활의 이로움을 추구하기 위한 7가지 상징물인데, 자연문인 서각문, 애엽문과 인공문인 경문, 방승문, 서보문, 전보문, 특경문으로 구성되어진다. 잡보문은 팔길상문과 칠보문의 보문을 제외한 여러가지 보배로 장식된 문양으로, 자연문인 산호문, 영지문이 있고, 인공문인 극문, 번문, 보문, 보주문, 선문, 여의문 등이 있다. 위의 내용을 <표 6>으로 정리하였다.

(2) 복합문

복합문은 2가지 이상의 다른 주제의 문양이 결합한 것으로 조사된 유물에서는 총 14가지의 방식이 나타났으며 공통이 되는 형식을 모아서 <표 7>과

<표 5> 인공문 용어정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의	
인공문	문자문	직선이나 곡선의 교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무늬		
		소리를 일정한 부호체계로 만든 문양		
		복자문(福字紋)	福 다복	
		부자문(富字紋)	富 부자	
		상자문(祥字紋)	祥 상서	
		수자문(壽字紋)	壽 장수	
		희자문(喜字紋)	喜 기쁨	
		추상문	구체적인 사물의 무늬를 구성 자유롭게 결합하여 만든 무늬	
			귀갑문(龜甲紋)	거북의 등껍질 형태, 육각형
			능문(菱紋)	마름모
	만자문(卍字紋)		卍	
	방격문(方格紋)		격자 문양	
	아자문(亞字紋)		亞	
	회자문(回字紋)		回	
	선문(線紋)		선(line)	
	연주문(聯珠紋)		구슬이 원(圓)의 형태로 꿰어진 듯 연결된 문양	
	점문(點紋)		점	
	태극문(太極紋)	태극		
	추상형문(抽象形紋)	마블링과 같은 형태의 문양		
	기타	그 외의 형태		
채조문(彩條紋)		색동문양		

<표 6> 보문 용어정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의		
자연문 + 인공문	보문	값지고 귀한 물건을 표현한 문양			
		팔길 상문	불교의 8가지 진귀한 것		
			자연	금어문(金魚紋)	금빛물고기 2마리
				연화문(蓮花紋)	연꽃
			인공	반장문(盤長紋)	처음과 끝이 이어지는 인연의 고리
				백개문(白蓋紋)	승리의 깃발
				법라문(法螺紋)	소로로 만든 피리
		법륜문(法輪紋)		진리의 바퀴	
		보병문(寶瓶紋)	보물이 담긴 꽃병, 물병		
		보산문(寶傘紋)	보물 양산		
		칠보문	생활에 이로움을 추구하기 위한 상징물		
			자연	서각문(犀角紋)	물소의 뿔
	애엽문(艾葉紋)			썩잎	
	인공		경문(磬紋)	옥이나 돌로 만든 악기	
			방승문(方勝紋)	보자기 네 귀에 다는 금종이 장식품	
			서보문(書寶紋)	책	
		전보문(錢寶紋)	화폐		
	특경문(特磬紋)	국악기 중 석부(石部)에 속하는 타악기			
	잡보문	여러 가지 기물문양			
		자연	산호문(珊瑚紋)	산호	
			영지문(領地紋)	영지	
		인공	극문(戟紋)	창	
			번문(幡紋)	깃발	
			보문(繡紋)	도끼	
보주문(寶珠紋)			구슬		
선문(扇紋)			부채		
여의문(如意紋)			법회 때 법사가 손에 드는 물건		

<표 7> 자연문+인공문 용어정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정의	
자연문 + 인공문	복합문	두 개 이상의 대분류가 함께 있는 경우의 문양		
		A형식	식물문+기하문(+산수문)	식물문+기하문에 산수문이 있거나 없는 형태
		B형식	식물문+동물문+기하문 (+산수문, 보문)	식물문+동물문+기하문에 산수문, 보문이 있거나 없는 형태
		C형식	식물문+동물문(+보문)	식물문+동물문에 보문이 있거나 없는 형태
		D형식	식물문+보문(+기하문)	식물문+보문에 기하문이 있거나 없는 형태
		E형식	산수문+기하문 (+동물문, 인물문)	산수문+기하문에 동물문 또는 인물문이 있거나 없는 형태

같이 5가지로 형식으로 정리하였다.

A형식은 식물문+기하문이 결합한 문양으로 주로 보이는 복합문 형식이다. 때로는 식물문+기하문에 산수문이 첨가되어 동적인 느낌을 주기도 한다. B형식은 식물문+동물문+기하문이 함께하는 어우러진 문양으로 산수문+보문이 함께 장식되기도 한다. C형식은

식물문+동물문이 결합한 방식으로 한 쪽의 그림을 연상시키며 때로는 보문을 곁들여 화려하게 장식하기도 한다. D형식은 식물문+보문이 결합한 형식으로 유기적 형태의 식물문과 아름다운 보문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미적 상승효과를 얻고, 때로는 기하문이 추가되기도 한다. E형식은 산수문+기하문이 함께 있는 문양

으로 동물문을 추가시켜 악센트를 주기도 한다.  
 <표 7>에 괄호 안의 문양은 함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음을 의미한다.

유물의 형태에 맞게 재구성하였다.

## 2. 복식문양의 패턴방식

패턴의 전개방식에는 규칙적 배열과 불규칙적 배열이 있는데, 선행연구의 전개방식을 참고하여 조사

### 1) 규칙적 배열

규칙적 패턴의 전개방식에는 일자형(一字形), 방격형(方格形), 벽돌형(壁形), 사선형(斜線形), 능형(菱形), 복합형(複合形)이 있다. 일자형은 수직방향으로 패턴이 반복되는 형태인 세로일자형과 수평방

<표 8> 규칙적 문양의 패턴방식

배열방법	패턴방식	정의	
규칙적	일자형	세로	수직의 형태로 반복되는 패턴 저고리의 깃, 고름, 끝동 등 회염, 금박의 방법으로 표현
		가로	수평의 방향으로 반복되는 패턴 저고리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움
	방격형	바둑판 모양의 격자 형태로 반복되는 패턴 주로 나타나는 전개방식	
	벽돌형	세로	세로로 벽돌을 쌓듯이 반복되는 패턴
		가로	가로로 벽돌을 쌓듯이 반복되는 패턴
	사선형	왼쪽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진행되는 패턴
		오른쪽	오른쪽 위에서 왼쪽 아래로 진행되는 패턴
	능형	두 개의 사선이 교차하는 패턴 방격형의 패턴방식 보다 동적(動的)	
	복합형	규칙적 패턴방식이 2개 이상 직물 바탕의 문양과 그 위에 장식된 문양의 패턴방식이 모두 규칙적인 경우	



향으로 패턴이 반복되는 가로일자형이 있다. 세로일자형은 저고리의 깃, 고름, 끝동에 주로 장식되며, 가로일자형의 경우 시선이 옆으로 분산되어 뚱뚱하게 보이므로 저고리에서는 그 예를 찾기 어렵고 치마의 경우 풍성함이 두드러지게 보이도록 하기 위하여 밑단 장식에 주로 사용한다. 방격형은 패턴이 바둑판처럼 반복되는 방식으로 주로 사용된 방식이다. 벽돌형은 벽돌 쌓는 방식으로 패턴이 반복이 되는 것을 말한다. 가로벽돌형은 패턴의 반복이 가로로는 일정하지만 세로로는 아래의 패턴을 빗겨 가며 쌓아지는 형태이고, 세로벽돌형은 세로로 일정하게 반복이 되지만 가로로 조금씩 빗겨 가며 반복되는 형태이다. 이러한 벽돌형의 패턴방식은 자칫 단조로워 보일 수 있는 방격형의 전개방식의 변화된 형태로도 볼 수 있다. 사선형의 패턴방식은 전통직물에서는 찾기 어려운 방식으로,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반복이 되는 사선형과 왼쪽 아래에서 오른쪽 위로 반복이 되는 형태로 2가지가 있다. 능형의 패턴방식은 원(圓)형의 문양에 전개방식으로 주로 이용되는데 특징으로는 넓은 여백을 갖고 있는 점이라 할 수 있다.

복합형은 위의 규칙적 패턴이 2개 이상 보이는 직물로, 문직물 위에 자수나 금박, 날염 또는 회염 장식을 가미한 경우가 여기에 속한다. 단, 모든 패턴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위의 내용을 이전의 <표 8>과 같이 그림으로 정리하였다.

## 2) 불규칙적 배열

불규칙적 배열은 반복되는 패턴 없이 산만하게 배열된 방식으로 풍경화나 정물화를 그리듯 회염을 한 경우가 여기에 속하며 <표 9>와 같다.

## 3. 복식문양의 표현형태

문양의 표현형태는 사실형(寫實形), 양식형(樣式形), 추상형(抽象形), 기하형(幾何形)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사실형은 원형의 모티브 모양으로 객관적으로 표현한 형태이며, 양식형은 일정한 스타일로 통일화시켜 표현한 것을 말한다. 추상형은 자기 주관적인 스타일로 변형시킨 형태로 원형(原形)의 모티브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다. 기하형은 점, 선, 면 등의 기본 도형을 이용하여 표현한 형태로 회화적 성격이 없는 경우이다.

이상의 내용을 표를 만들면 다음과 같다<표 10>.

## 4. 복식문양의 표현기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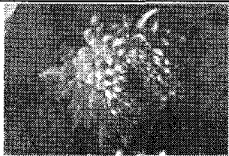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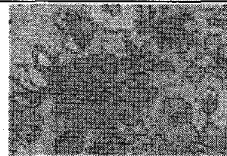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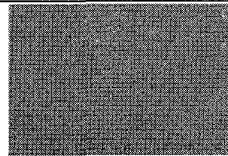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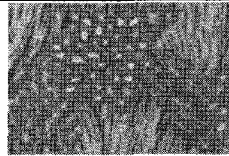
조사된 유물에 사용된 표현기법으로는 총 7가지로 나타난다.

직문은 직조 시 문양을 함께 짜는 방식으로 근대에는 레이스, 망사 등의 다양한 형태의 직문을 볼 수 있다. 자수는 실을 이용하여 직물에 장식하는 방법으로 기계자수, 손자수로 나눌 수 있는데 대부분 기계

<표 9> 불규칙적 문양의 패턴방식

배열방법	패턴방식	정의	
불규칙적	산만형	불규칙적	패턴의 전개방식에 규칙 없이 산만함

<표 10> 문양 표현형태의 분류

표현형태			
			
<그림 3> 사실형(1970년대) 2009. 1. 19. 조사	<그림 4> 양식형(1970년대) 2009. 1. 20. 조사	<그림 5> 추상형(1970년대) 2009. 1. 21. 조사	<그림 6> 기하형(1970년대) 2009. 1. 22. 조사

자수를 이용하여 한복을 장식한 것으로 나타난다. 금박은 접착제를 이용하여 금박지를 붙여 문양을 내는 기법으로 근대에는 회장저고리나 예복용 한복의 깃, 끝동, 고름 등에 장식 할 때 사용한 기법이다. 회염(繪染)은 염료를 이용하여 직접 직물에 그림을 그리는 형태로 근대에는 찾기 힘들며 예복용 저고리에 가끔 보인다. 날염(捺染)은 직물에 문양을 염색하는 기법으로 광복 전후부터 보이기 시작한 염색기법이다.

기타방식으로는 표현하고자 하는 곳에 플록(Flock)<sup>14)</sup>을 부착하여 문양을 만드는 플로킹(flocking)과 일정부분을 태워 문양을 나타내는 번아웃(burn-out)이 있다<표 11>.

### Ⅲ. 근대 여자한복 문양의 분석

본 장에서는 근대 여자한복의 문양분석 자료를 이용하여 시기별 복식문양의 종류, 패턴크기, 패턴방식, 표현형태, 표현기법을 파악하고 그 특징과 문양변천의 원인을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앞으로 나올 자료수치는 문양의 유무(有無)를 나타낸 표를 제외하고는 모두 직물의 개수를 기준으로 나온 비율(%)임을 미리 명시한다.

#### 1. 시기별 문양분석

여자한복의 시기 구분을 위하여 기증 관련 기록을 참고하여 기증 연도가 확실한 유물을 기준으로 1910년대, 1920년대, 1930년대 등과 같이 10년 단위로 분

<표 11> 문양 표현기법의 종류

표현기법			
<그림 7> 직문(1970년대) 2009. 1. 19. 조사	<그림 8> 자수(1970년대) 2009. 1. 20. 조사	<그림 9> 금박 2009. 1. 15. 조사	<그림 10> 회염(1980년대) 2009. 1. 23. 조사
<그림 11> 날염(1970년대) 2009. 1. 21. 조사	<그림 12> 플로킹(1960년대) 2009. 1. 21. 조사	<그림 13> 번아웃(1960년대) 2009. 1. 15. 조사	

<표 12> 시기별 저고리, 치마, 직물의 수

(단위: 점)

연도 \ 종류	1910~1939	1940~1949	1950~1959	1960~1969	1970~1979	1980~1989	전체
저고리	23	47	25	61	107	11	274
저고리 사용 직물	34	56	28	66	109	11	304
치마	3	6	9	47	59	5	129

〈표 13〉 근대 여자 저고리의 문양유무

(단위: %)

연대 비율(%)	1910~1939	1940~1949	1950~1959	1960~1969	1970~1979	1980~1989
문양無	30	43	40	34	29	36
문양有	70	57	60	66	71	64

〈표 14〉 근대 여자복식 일습

(단위: 벌)

연도 일습(벌)	1910~1939	1940~1949	1950~1959	1960~1969	1970~1979	1980~1989	전체
일습	1	0	3	18	43	4	69

류하고, 보다 정확한 시기 구분을 위하여 유물의 치수, 직물, 색채에 관련한 근대복식의 선행자료를 통하여 시기별 구분을 하는데 참고하였다. 시기별 저고리, 치마, 직물의 수는 〈표 12〉와 같다. 조사유물 중 1910년~39년까지의 자료는 다른 시기에 비하여 그 수량이 매우 적고 저고리에 나타나는 문양과 색의 특징이 유사하여 함께 분석하였으며 이후는 10년대로 나누어 문양조사를 시행하였다.

근대 초기에는 저고리와 저고리 사용 직물의 차가 큰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회장저고리나 반회장저고리 등 하나의 저고리에 다양한 직물을 사용하여 지어 입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근대 후기에는 화려하고 다양한 직물문양으로 인하여 한가지 직물로 저고리를 제작하여 1950년부터 저고리와 사용 직물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 문양의 유무

다음의 〈표 13〉은 근대 여자저고리에 표현된 문양의 유무를 시기별로 비교하여 놓은 표로 1940년대에는 전쟁으로 인하여 직물이 발달하지 못하고 옷감 절약을 위하여 옷고름 폐지가 장려되는 등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었던 시기로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무문직(無紋織)의 면직물 저고리를 입었으므로 문양의 빈도가 낮게 나타난다. 이후 미군주둔시기에는 나일론 소재로 화학섬유의 수요가 급증하고, 1955년에는 최초로 섬유를 수출하는 등 섬유공업이 점차 발달하

여 복잡한 문직물(紋織物)도 국내 생산이 가능하게 되었다. 1960년대부터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거치며 수출 위주의 섬유공업이 발달하고, 수입과 마스크의 발달로 국제화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1950년대 시작되었던 한복의 예복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되었고 이후 〈표 13〉에서와 같이 직물의 문양빈도가 높아져 1960, 70년대 근대 여자한복의 화려함은 절정에 이른다. 그러나 1980년대 국제적 행사<sup>15)</sup>의 영향으로 자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다시 전통적인 것을 찾게 되고, 한복 또한 회귀(回歸)되어 장식이 사라지며 문양의 비율이 감소하게 된다.

조사된 치마유물의 경우 대부분 1960년~70년대의 것들로 시기별 문양의 유무를 나타내기에는 객관적 측정이 어려우나, 치마의 수가 극히 적은 1910년~39년과 1980년대를 제외하고는 〈표 13〉과 비슷한 흐름으로 보인다.

저고리와 치마를 같은 원단으로 지어 입은 것은 한복의 예복화가 시작되었던 1950년대 유물에서 보이기 시작하며 조사된 자료에서는 1970년대에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는 전쟁 직후 미제(美製)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차림새가 양장화되고 슈트(suits)의 영향으로 한복에서도 저고리와 치마를 같은 천으로 만들어 입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표 14).

### 2) 문양의 종류

다음의 〈표 15〉는 여자한복 유물에 나타난 문양종류

를 시기별로 분석한 표로, 근대 여자한복에 나타난 문양종류에는 식물문, 동물문, 기하문이 있으며, 인물문, 산수문, 보문의 경우 복합문에서 다른 문양과 함께 어우러져 직물의 장식적 효과를 가미하는 역할을 한다.

식물문은 1960년, 70년대 예복화된 한복에서 주로 나타나며, 서양의 아르누보 양식에서도 볼 수 있듯 식물의 유기적 형태가 의복을 장식하는데 가장 효과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기하문의 경우 근대 후기로 갈수록 그 빈도가 높아져, 현대인들이 간결하면서도 세련된 기하학적 이미지를 추구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복합문은 그와 반대로 근대 초기일수록 사용률이 높는데, 이는 길상의 의미가 담긴 복합문을 직물에 장식하였던 조선 후기의 특징이 1900년대 초기까지 이어졌다고 판단된다.

(1) 식물문

〈표 16〉은 여자한복 유물에 나타난 식물문의 종류를 표로 정리한 것으로 화문(花紋), 나무문(木紋), 과실문(果實紋)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식물문의 대부분은 화문으로 이는 아름다움을 동

경하는 여자들의 감성을 자극할 만한 모티브 중 제일 이 꽃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화문은 연화문, 목단문, 매화문, 국화문 등의 전통화문 뿐 아니라 개화로 인하여 옷감이 수입되어 장미문, 튜립문, 추상화문과 같은 서양화(西洋花)가 장식된 직물을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연구된 직물에 나타난 서양화문의 가장 큰 특징으로 다양한 패턴크기를 들 수 있는데, 전통화문의 모티브의 경우 5~10cm<sup>2</sup> 안팎인 것에 비하여 서양화문은 1~44cm<sup>2</sup>로 다양하게 조사된다. 이러한 서양화문의 1960년, 70년대 직물에서 주로 보이는데, 이는 서양문물의 유입과 날염방식의 유행이 함께 어우러졌기에 크기와 색상이 다양한 서양화문이 만들어질 수 있었다.

나무문은 추상화(抽象化)된 형태로 그 종류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위에서 언급한 화문과 같이 모티브의 크기와 색상이 자유로웠으며, 과실문에는 천도문과 포도문을 볼 수 있다.

(2) 동물문

〈표 17〉은 여자한복 유물의 시기별 동물문 종류를

〈표 15〉 근대 여자한복 유물의 문양종류

(단위: %)

연도	식물문	동물문	인물문	산수문	기하문	보문	복합문
~1939년	40	0	0	0	3	0	57
~1949년	29	0	0	0	8	0	63
~1959년	35	4	0	0	13	0	48
~1969년	58	2	0	0	10	0	30
~1979년	50	3	0	0	25	0	22
~1989년	41.5	16.5	0	0	25	0	17

〈표 16〉 근대 여자한복 유물의 식물문 종류

(단위: %)

연도	화문	나무문	과실문
~1939년	92	0	8
~1949년	100	0	0
~1959년	100	0	0
~1969년	100	0	0
~1979년	95	2	3
~1989년	100	0	0

표로 정리한 것으로 조문(鳥紋), 곤충문(昆蟲紋)이 있다.

1970년대까지의 동물문은 대부분 곤충문으로 화문과 어우러질 수 있는 접문(蝶紋)이다. 이후 1980년대에는 모두 조문으로 추상화되어 정확한 새 종류는 알 수 없다.

〈표 17〉 근대 여자한복 유물의 동물문 종류 (단위: %)

연도	조문	곤충문
~1939년	0	0
~1949년	0	0
~1959년	0	100
~1969년	0	100
~1979년	0	100
~1989년	100	0

### (3) 기하문

〈표 18〉은 근대 여자한복 유물의 시기별 기하문의 종류를 나타낸 것으로 문자문(文字紋), 추상문(抽象紋), 기타기하문(其他幾何紋)으로 나누었다.

근대 초 추상문은 만자문과 선문이 주로 보이며

〈표 18〉 근대 여자한복 유물의 기하문 종류

(단위: %)

연도	문자문	추상문	기타기하문
~1939년	0	100	0
~1949년	0	100	0
~1959년	0	100	0
~1969년	11	56	33
~1979년	9	91	0
~1989년	0	100	0

〈표 19〉 근대 여자한복 유물의 복합문 종류

(단위: %)

연도	A형식	B형식	C형식	D형식	E형식
~1939년	65	23	0	0	12
~1949년	76.5	4	4	4	8.5
~1959년	18.5	36	27	0	18.5
~1969년	50	19	8	15	8
~1979년	50	25	7	11	7
~1989년	0	100	0	0	0

시기가 지날수록 다양한 종류가 등장하는데, 1950년대에는 능문, 연주문이 1960년대는 능문, 방격문, 만자문이 나타나며, 1970년대에는 앞서 언급한 문양뿐만 아니라 태극문, 추상형문 등 다채로운 형태가 출현한다. 그에 비하여 1980년대에는 점문, 능문과 같이 심플한 문양이 주로 보인다.

문자문에는 壽, 福, 喜자가 쓰였으며, 기타기하문은 대부분 채조문으로 되어 있다.

### (4) 복합문

〈표 19〉는 근대 여자한복 유물의 시기별 복합문 종류를 나타낸 것으로 〈표 7〉에서 언급하였듯이 5가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복합문은 5가지의 형식 중 A형식이 가장 많이 조사되었다.

A형식은 1910~1949년까지는 화문[식물문]+문자문[기하문]의 결합이 주로 보이는데 대부분 원형(圓形)으로 도안된 壽자 주변에 꽃, 잎, 줄기로 장식한 직물이다. 1960~1970년대에는 유기적인 아름다움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화문[식물문]주변에 다양한 형태의

선문[기하문]을 장식하거나, 또는 지문(地紋)에 방격형으로 반복되는 점문[기하문]을 배치하여 산만하게 보일 수 있는 복합문을 정돈하였다. B형식은 1950년대 등글게 도안된 문자문[기하문] 주변으로 편복문[동물문]을 장식하고 세화문과 표주박문[식물문]이 가미되어 있으며 여백에 때로는 운문[산수문]과 잡보문[보문]이 함께 장식되기도 한다. C형식은 <표 7>의 복합문 형식에서 볼 수 있듯 B형식과 비슷하게 보이나, B형식의 경우 표현형태가 양식형이며 길상의 의

미가 있는 문양을 사용한 반면 C형식의 경우 문양이 사실형태에 가깝고 길상의 의미보다는 장식적 효과에 중점을 두었다. 1950년대 주로 보이며 용문[동물문]과 보주문[보문], 세화문[식물문]을 함께 장식하였다. D형식은 [보문]에 꽃과 덩굴[식물문]을 함께 장식하여 보문의 아름다움을 더욱 돋보이게 하였다. E형식은 유일하게 식물문이 없는 복합문으로, 운문[산수문]과 학문, 편복문[동물문] 주변을 壽, 卍의 문자문[기하문]으로 꾸민 형태로 현대직물에서는 보

<표 20> 근대 여자한복 유물의 패턴방식

(단위: %)

연도	종류	세로 일자	가로 일자	방격	세로 벽돌	가로 벽돌	왼쪽 사선	오른쪽 사선	능형	산만형	복합형	알수 없음
~1939년		3	0	64	0	3	0	0	0	0	0	30
~1949년		2.5	2.5	68.5	2.5	11	0	0	0	0	0	13
~1959년		4	0	70.5	0	4	4	0	4	0	0	13.5
~1969년		0	0	77	8	2	0	0	6	1	0	6
~1979년		5.5	0	44	16	8.5	0	1	19	4	0	2
~1989년		17	0	25	0	25	0	0	33	0	0	0

<표 21> 근대 여자한복 유물의 표현형태

(단위: %)

연도	종류	사실형	양식형	추상형	기하형
~1939년		20	50	20	10
~1949년		16	42	18	24
~1959년		26	43	22	9
~1969년		9	56.5	26.5	8
~1979년		13	42	28	17
~1989년		16.5	42	16.5	25

<표 22> 근대 여자한복 유물의 표현기법

(단위: %)

연도	종류	직문	자수	회염	날염	금박	기타표현
~1939년		93	0	0	0	7	0
~1949년		92	3	0	5	0	0
~1959년		83	13	0	4	0	0
~1969년		75	9	0	10	1	5
~1979년		48	12	0	38	2	0
~1989년		67	0	33	0	0	0

기 힘든 형식이다.

### 3) 패턴방식

이전의 <표 20>은 근대 여자한복 유물의 시기별 패턴방식의 변화를 표로 나타낸 것으로 방격형의 전개방식이 주를 이룬다.

방격형 전개방식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감소하며 1950년부터는 날염기법의 문양표현으로 패턴방식이 다양해지기 시작하였고 이후 직물에는 더욱 그러한 양상을 띤다.

### 4) 표현형태

<표 21>은 유물문양의 표현형태에 대한 분석표이다.

사실적 형태는 1940~50년대에 나타나며, 양식형은 1960년대 직물에서 주로 보인다. 추상형은 1960~70년대 각각 26.5%와 28%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한복이 예복화되던 시기로 식물문과 기하문을 추상형태로 응용하여 다양하고 화려하게 직물을 장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1980년대에는 86아시아게임과 88서울올림픽의 영향으로 다시 전통적인 것을 추구하였기에 1940년대 직물의 문양 표현형태의 수치와 비슷한 비율로 보인다. 그러나 과거에 비하여 세련된 형태를 추구하였으므로 기하형으로 표현한 문양이 비율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5) 표현기법

앞의 <표 22>는 근대 여자한복 유물문양의 표현기법을 시기별 분석표로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조사된 유물의 문양 표현기법은 대부분 직문이었으나 시기별로 차이가 있다. 근대 초기에는 지조직(地組織)과 문조직(紋組織)을 같은 실을 이용하여 문양을 나타냈고, 1950년대는 문양에 반직이 실을 이용하여 직문하였으며, 1960년대에는 레이스, 망사 직물이 주로 조사되었다. 자수는 1950년대와 1970년대 주로 보이나 이 또한 차이점이 있다. 1950년대는 단(緞)직물인 홍콩양단에 기계자수를 이용하여 한 폭의 그림처럼 사실형태의 문양을 장식하였고, 1970년대에는 얇은 나일론 원단에 작은 크기의 양식화된 문양

을 능형의 전개방식으로 배열하여 표현하였다. 회염은 1980년대 높은 비율로 조사되었는데 국제행사의 영향으로 전통에 관심이 높아져 이 시기 한복디자이너의 수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한복의 고급화가 이루어지고 개인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는 회염기법을 한복장식에 사용하였다고 본다. 날염은 1970년대 높은 빈도로 사용되었고 특히 조사유물에서는 저고리와 치마에 같은 원단의 날염한 나일론을 이용하여 제작한 것이 대부분이다. 금박은 근대 초기 주로 보이며, 기타표현으로는 플로킹, 번아웃 등이 1960년대 직물에서 조사되었다.

## 2. 근대 한복문양의 변천요인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시기별 문양 특징에 따라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 1) 제1시기(1910년~1950년대 초)

개화기 이후 신분제도가 폐지되고 복식의 착용이 자유로워진 1시기에는 관료, 유학생 등으로부터 양복이 소개되고 점차 지식인의 상징으로 여겨져 양복 수요가 증가하였다. 이시기는 일제 강점기와 6·25전쟁으로 인하여 한복이 발전하기 어려웠던 시기로 문양의 빈도가 낮아지며 문양이 없는 면직물의 저고리가 많이 보인다. 또한 조선 후기 복식에서 보이는 문양의 종류와 비슷하여 전통문양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조선 후기 유교관념이 강하게 되면서 다산, 다남 등 길상의 의미가 있는 문양을 사용하여 사실적으로 표현된 복합문을 볼 수 있다. 근대에는 제1시기에 복합문이 가장 많이 보이고 이후 제3시기로 갈수록 점점 낮은 비율로 조사되었다. 조선 후기 복합문의 경우 자손번창이 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었기에 다산(多産), 다남(多男)을 상징하는 복합문인 포도동자문(葡萄童子紋), 포도송이문(葡萄松鼠紋), 도류불수문(桃榴佛手紋) 등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근대의 경우에는 자신의 염원을 표현하기 위하여 福, 富, 祥, 壽, 喜자를 중심으로 식물 등과 결합하여 복합문을 사용하였다. 이는 개화로 서양의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받아들일게 되고, 이러한 사람들의 의식

변화로 길상의 의미가 담긴 복합문의 주체가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표현형태는 사실적으로 표현된 문양의 비율이 높은 편으로 조선과 근대 두 시대의 문양 모두 사실적이지만, 조선 후기에는 큰 가채와 하후상박형의 풍성한 치마에서 볼 수 있듯이 아름다움을 표현하기 위하여 과장적인 형태로 부피감을 표현하였다. 예를 들어 조선의 화문은 줄기와 잎보다 꽃봉오리를 풍성하게 강조하였으나, 근대에는 개화로 복식이 실용화, 간소화되어 문양 역시 실제 모티브의 형태와 비례가 사실적이고, 최소한의 선을 이용하여 문양을 표현하였다.

표현기법에 있어서도 조선의 방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직문과 금박 등의 방법으로 복식문양을 표현하였다.

## 2) 제2시기(1950년 후~1979년)

제2시기에는 6·25전쟁 이후 미군에 의하여 합성섬유가 소개되어 이후 합성섬유의 생산, 소비가 늘었다. 경제적이고 편리한 옷이 주로 패션쇼에서 선보였고, 신교육을 받은 여자들의 양장 착용이 늘어났다<sup>16)</sup>. 잡지 등의 대중매체 활성화로 복식에 관심도가 높아져 이러한 현상은 양장화를 가속화 시켰다. 또한 기성복 양장이 나오기 시작함으로써 한복은 점차 예복으로 착용되어 장식을 가미하기 시작하였다. 한복 역시 슈트의 영향으로 저고리와 치마를 일습으로 입는 것이 유행하였다. 자수 장식은 1950년대 후반에는 10cm<sup>2</sup>이상의 사실형 패턴에서 점차 1970년대에 가까워질수록 문양의 크기는 점점 작아지고 양식화되었다. 후기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고 세련되어짐을 알 수 있다.

1960년대에는 스크린 날염의 보급으로 빠르게 문양을 찍어낼 수 있었다. 또한 작업의 기계화로 시간상으로 여유가 생긴 제작자들이 문양을 디자인하기 시작함으로써 양식형, 추상형 등 문양들이 더욱 다양하게 되었을 알 수 있다.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되었고, 경제 성장과 함께 섬유 산업 또한 급성장하였기에 전통직물 이외에도 레이스, 망사, 플로킹 등 다양한 기법을 이용하여 직물에 문양을 표현하였다. 양장점은 소규모의 고급화로 전략으로 서구

화된 생활이 가속화되면서 한복은 특별한 날에 입는 옷으로 각인되었다.

## 3) 제3시기(1980년~1989년)

1980년대 컬러TV의 등장으로 색채와 문양이 화려한 복식이 유행하였고, 디자인의 중요성이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생활수준과 사람들의 눈높이가 향상되고, 한복 또한 고급화가 진행되어 이전의 장식이 과도하였던 한복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하였다. 아시안게임과 서울올림픽의 개최 시 행사요원이 한복을 착용함으로써 한복이 다시 재조명되어 사람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한복디자인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치마 전체에 그림을 그리듯 장식한 회염기법을 이용하여 당시 소비자의 개성을 살려 문양을 디자인하였다. 기하문의 경우 제3시기로 갈수록 빈도가 높아지는데, 근대 후기로 갈수록 문양변화가 간결하고 세련미를 추구하여 기하문의 사용빈도가 점차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에 팝아트의 영향을 받아 일반복식에서는 체크무늬, 도트(dot)무늬 등이 여자복식에 장식되었음을 잡지나 사진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유행이 한복에까지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 I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개화기 이후 1910년대~1980년대까지 근대 여자한복의 실물자료를 통하여 여자 저고리와 치마에 나타난 문양의 변화요인을 밝히고자 하였다. 실제 자료 분석에 앞서 임의로 10년 단위씩 구분하여 문양종류, 패턴방식, 표현형태, 표현기법 등을 조사하였다.

분석결과 근대 여자한복에 나타난 문양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근대 여자한복의 문양은 1950년대 초까지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으로 복식에 나타난 문양의 비율이 낮고, 1960, 70년대 한복의 예복화 시기에는 복식의 문양빈도가 높게 나왔다.

둘째, 근대 여자한복에는 <표 1>, <표 2>, <표 3>, <표 4>, <표 5>, <표 6>에서 정리한 문양용어 중



진한 글씨에서 볼 수 있듯이 식물문 60%, 동물문 47%, 인물문 100%, 산수문 17%, 기하문 94%, 보문 39%가 나타났다. 식물문의 경우 자연형화문 중 서양화 종류와 변형화문으로 주로 장식하였고, 산수문의 경우 정리된 문양용어 중 운문만 조사되었으며, 기하문의 경우 회(回)자문을 제외한 대부분이 근대 여자한복에서 장식되었다. 즉 근대에는 서양의 꽃, 변형의 꽃, 기하형의 도형, 길상의 의미가 있는 문자를 주로 이용하여 여자한복의 직물을 장식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문양종류에는 식물문이 주로 보이는데 1950년대 이후 한복의 예복화가 진행됨에 따라 그 사용빈도가 더욱 높게 나타났다. 이는 식물의 유기적 형태가 화려한 장식을 하는데 유리한 것으로 파악된다. 화문은 식물문 중 가장 많이 나타나 여자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최고의 모티브라 할 수 있다. 기하문은 근대 후기로 갈수록 직물에 표현된 빈도가 높아지는데 이는 서양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현대로 진행될수록 간결하며 세련된 기하학적 이미지를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복합문은 근대 초기에 길상 의미가 있는 문양을 주로 사용하였으나 후기로 갈수록 시각적 아름다움에 비중을 두어 아름다움을 표현하였다.

셋째, 패턴방식은 대부분 방격형이며 1950년대 이후 날염의 등장으로 문양표현이 자유로워져 다양한 패턴방식이 나타난다. 패턴형태는 근대 초기 사실형의 문양이 많았으나 예복화시기인 1950년대~1970년대에 양식형과 추상형 등 다양한 문양의 형태를 볼 수 있으며 1980년대에는 올림픽의 영향으로 전통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표 21>에서 볼 수 있듯이 추상형태의 문양 비율이 낮아지고 기하형의 문양빈도가 높아짐으로써 1940년대 패턴형태 그래프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표현기법으로 직문이 주로 쓰였으며 1950년대 이후 다양한 기법이 등장하는데 1950년대에는 주로 자수기법이 보이며 1960년대는 직물산업의 발달로 레이스, 망사, 플로킹, 번아웃 등 다양한 문양기법이 등장하며 날염방식의 발전으로 1970년대에는 날염직물이 높은 비율로 보인다. 1980년대에는 개성이 중시되었던 시기로 한복디자인에 의하여 회염장식을 주로 하였다.

이러한 시기별 문양의 특징은 크게 3시기로 구분

하여 문양변화의 요인을 살펴볼 수 있다.

제1시기는 1910년대~1950년대 전기로 문양이 없거나, 길상 의미가 있는 복합문을 주로 사용하였던 시기로 신분제 폐지와 복식 착용의 자유화로 복식이 간소화되고, 직물이 수입되었다. 특히 상류층 복식에 비단이 주로 사용되었는데 근대가 시작되었던 1900년대 초기 청나라 상품으로 매화문+접문, 귀갑문, 만자문, 초화문 등의 문직물 비단이 수입되었다. 이후 일제강점기와 6·25전쟁으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복식에도 영향을 미쳐 무문직의 복식이 주류를 이루어 문양이 발달하지 못하고 조선 후기 복식문양의 종류와 유사함을 볼 수 있다. 조선 후기 복식문양은 남성 중심의 유교관념이 강하여 가정과 자손번창이 여자들의 주요 관심사였기에 다산(多産), 다남(多男)을 상징하는 길상의 의미가 담긴 복합문이 주로 표현되었다. 하지만 근대는 장수, 기쁨 등 자신의 행복을 바라는 복합문이 주로 보여, 아마도 서양의 자유주의, 개인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여자들의 의식 변화가 가져온 결과라 생각된다. 문양종류는 복합문, 식물문, 기하문 순으로 나타났다. 문양의 표현형태는 조선 후기 영향으로 다룬 시기보다 사실형을 한 문양이 주로 보이는데 문양 표현에 있어서는 약간의 차이점을 보인다. 조선 후기는 당시 유행이었던 가채와 하후상박형의 치마처럼 문양에서 강조하고 싶은 부위를 크고 풍성하게 표현하여 실제 모티브와 비례가 맞지 않았으나, 서양복의 영향으로 복식이 간소화되었던 근대에는 문양 역시 작고 세밀하며 문양에 표현된 모티브가 실제의 것과 유사한 비례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양의 표현 방법으로는 직문, 금박, 날염, 자수 순으로 주로 사용되었다. 문양에 사용된 색채는 주로 1~2가지를 사용하였고 한 직물에 4가지의 색채를 사용하여 문양을 표현한 것도 있으나 소수에 불과하다.

제2시기에는 1950년대 후반~1970년대까지로 한복이 예복화되어 문양의 표현 형태와 기법 모두 다양하게 된 시기이다. 전쟁 직후 일시적으로 한복 착용자가 늘고 양복의 영향으로 저고리와 치마를 같은 원단으로 지어 입는 것이 유행하였다. 또한 미군 주둔시기 미군에 의하여 합성섬유가 소개되고 특히 나일론이 큰 인기를 얻었다. 문양종류는 식물문이 가장 많

고 복합문과 기하문, 동물문 순으로 나타났다. 문양의 표현기법은 직문, 날염, 자수, 기타(번아웃, 플로킹), 금박 순으로 나타나는데 자수는 1950년대에서 1970년대로 갈수록 크기는 작아지고 형태는 사실형에서 양식형으로 변하여 문양이 점차 작아지고 세련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다. 1960년대에는 스크린 날염방식으로 문양이 제작되고 시간적 여유가 생긴 제작자는 문양 디자인을 함으로써 다양한 형식과 문양 크기, 전개방식이 나타났다. 이로써 제2시기 후반에는 나일론 원단에 날염방식을 한 많은 양의 저고리와 치마 일습을 확인할 수 있다. 문양 표현기법은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섬유산업도 급성장하여 레이스, 망사, 플로킹 등 다양한 기법의 문양을 볼 수 있다. 문양의 색채는 이전 시기보다 다양하게 되어 하나의 직물에 많게는 6가지 이상을 색채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제3시기에는 패턴크기가 작아지고, 주로 한 가지 방법으로 문양을 표현하였던 시기로 1980년대이다. 문양의 종류는 기하문, 식물문, 복합문, 동물문 순으로 나타나며 기하문의 경우 제1시기에서 제3시기로 진행됨에 따라 직물에 표현된 빈도가 높아져 현대에 갈수록 사람들의 취향이 간결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10년에서 20년 정도 앞선 시기 서양에서 몬드리안의 그림이나 도형을 복식문양에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우리나라 역시 1960,70년대에 이러한 영향을 받아 체크무늬와 도트무늬 등이 장식된 일반복식을 입은 여자들의 모습을 잡지나 사진자료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아마도 이러한 유행이 한복에까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양의 표현기법은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한복의 고급화가 진행되고 국제적 행사<sup>17)</sup>의 개최로 전통복식이 재조명되어 한복디자이너의 수가 증가하여 치마와 저고리에 회염장식이 유행하였다. 이 시기 문양에 사용된 색채는 1~3가지 정도였으나 회염장식을 위한 색의 조합으로 다양한 색을 얻을 수 있었다.

본 연구는 1910년~1989년까지 여자한복 유물의 문양의 특징과 변천요인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치마유물은 1960, 70년대 집중 분포되어 1910년~1950년대까지 유물 수량이 많지 않아 시기별 문양흐름을 분석

하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를 가진다. 따라서 앞으로 더 많은 근대 한복유물의 문양자료를 수집한다면 보다 정확한 데이터로 정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대는 개방화 시대로 세계화된 시장에서 한국의 이미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또한 디자인 경쟁시대로 선진국에서는 그 나라의 문화 이미지 구축과 함께 그들의 고유문화를 현대화시킴으로써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당시의 한복 문양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인들에게 호감을 살 수 있는 감성적 문양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한복 또한 새로운 트렌드에 맞추어 디자인됨으로써 우리의 전통문화가 세계화, 산업화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 참고문헌

- 1) 본 연구에서는 1910~1989년까지로 정한다.
- 2) 김인숙 (2001). 조선시대 자수생활공예품의 문양에 관한 연구. *한국공예논총*, 4(1), pp. 7-30.
- 3) 박상미 (1996). *조선시대 복식에 나타난 문양개발 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박영진 (1993). *한국문양의 주제분류를 통한 변천 연구: 직물에 나타난 문양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5) 백영심 (1994). *한복 형태의 유형과 문양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6) 심연옥 (2006). *한국 직물 문양 이천년*. 서울: 고려직물연구소출판부.
- 7) 임영주 (1998). *한국문양사: 한국미술양식의 흐름*. 서울: 미진사.
- 8) 최경순 (1999). 1990년대 후반 한국 전통 의상에 사용된 문양에 관한 고찰. *복식문화연구*, 7(5), pp. 812-824.
- 9) 하덕순 (1993). *한복에 장식된 문양에 관한 연구: 80년대-현재까지 치마 저고리를 중심으로*. 성신여자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0) 하호선 (2004). *한복 직물문양에 관한 연구: 해방이후부터 2003년까지의 문적물을 중심으로*. 성균관대 생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1) 국립문화재연구소 (2006). *우리나라 전통 무늬 1* 직물. 서울: 놀와.
- 12) 김선경 (2004). 현대 한복소재 문양의 조형적 특성. *한복문화*, 7(2), pp. 71-80.
- 13) 장수경 (1994). 한국전통문양의 유형에 따른 분류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4, pp. 283-295.
- 14) 분말화 된 단섬유
- 15)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
- 16) 서울특별시 (1995). *서울민속대관 9 의식주편*, 서울: 서울특별시, p. 283.
- 17)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